



내민 작은 손
 마주하는 밝은 미소
 함께하는 즐거움

충남대한민국의 중심

손길 나눔

아름다운 봉사활동이 묻어나는 행복한 소식지 **2006** 겨울호 | 통권29호



인생은 한 권의 책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

우리는 매일 매일 한 페이지씩 책을 써 나아간다.
어떤 사람은 잘 쓰고 어떤 사람은 잘못 쓴다.
아름답게 쓰는 이도 있고 추하게 쓰는 이도 있다.
공허한 페이지를 쓰는 이도 있고 충실한 페이지를 쓰는 이도 있다.
맑은 노래가 담긴 페이지를 쓰는 이도 있고
더러운 내용으로 가득 찬 페이지를 쓰는 이도 있다.

희망의 노래를 읊는 이도 있고 절망의 노래를 부르는 이도 있다.
고운 글씨로 쓰는 이도 있고 지저분한 글씨로 쓰는 이도 있다.
정성스럽게 인생의 책을 써 나아가는 이도 있고
무책임하게 인생의 책을 기록하는 이도 있다.
푸른 글씨로 쓰는 이도 있고 회색 글씨로 쓰는 이도 있다.

인생의 책이 세상의 책과 다른 점은 두 번 쓸 수 없다는 점이다.
세상의 책은 잘못 쓰면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찢어 버리거나 절판 내지 해판을 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인생의 책은 다시 쓸 수 없다. 또 남이 써 줄 수도 없다.
잘 쓰건 못 쓰건 나의 판단과 책임과 노력을 가지고 써 나아가야 한다.

오늘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쌓이고 쌓여서 일생이란 한 권의 책이 된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페이지를 정성껏 써야 한다.
책임과 능력과 지혜를 다해서 그날그날의 페이지를 충실하게 써야 한다.
저마다 인생의 명저를 쓰기에 힘써야 한다.

〈안병욱 좌우명 365일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충청남도청소년자연봉사센터가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그동안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센터의 업무가 현재 주5일제 수업 등으로 인한 청소년 및 가족의 여가시간증대와 활동참여 욕구에 적극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청소년활동의 추진체로서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체험활동, 교류활동, 참여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서비스 합니다.



일반현황

- 명 칭 :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소 재 지 : 충청남도 논산시 취암동 19-1, 논산공설운동장내
- 설 치 자 : 충청남도지사
- 운영단체 : (사)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논산지회
- 개소일자 : 1997년 12월 01일
- 명칭변경 : 2006년 08월 11일
- 인 원 : 7명(소장, 사무국장, 운영부장, 운영요원, 행정요원)
- 전 화 : 04 1)736-9003,4
- 팩 스 : 04 1)733-1984
- 홈페이지 : <http://www.bongsai.or.kr>

함께하는 선생님~

- 언제나~ 인자하신! __ 이성구 소장님
- 센터 최고의 미녀! __ 이영희 사무국장님
- '칼있으나 오~!' __ 오제상 운영부장님
- 센터 최고의 생얼 얼짱! __ 이선열 운영요원
- 센터 최고의 동안! __ 김영이 운영요원
- 센터 유일의 20대~! __ 이영미 운영요원
- 목소리가 아름다운 미시족! __ 정화진 행정요원



충청남도 | Youth Service Center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충청남도내 봉사활동을 위한 활동터전 안내입니다.

부여군

백제노인병원

- 부여군 자석리 26-3
- ☎ 837-7116
- 담당자 : 안창숙 선생님

만수노인복지원

- 부여군 외신면 만수리 55-22
- ☎ 836-1447
- 담당자 : 정상진 사무국장님

가림노인전문병원

-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 72-1
- ☎ 837-7575
- 담당자 : 연진우 선생님

부여노인병원

- 부여군 부여읍 반산리 254-1
- ☎ 836-1984
- 담당자 : 양재호 행정부장님

원광어린이집

-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90-5
- ☎ 832-9342
- 담당자 : 김미중 원감님

부여중앙노인전문병원

-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598
- ☎ 836-6300
- 담당자 : 이규창 국장님

천안시

한빛회

- 천안시 쌍용동 551-1
- ☎ 579-8220
- 담당자 : 임은영 선생님

시각장애인연합회충남도지부

- 천안시 성정2동 895
- ☎ 578-4181
- 담당자 : 고선화 선생님

구생원(천안정신요양원)

- 천안시 동면 동산리 산 61-4
- ☎ 523-2531
- 담당자 : 김재덕 선생님

천안우편 집중국

- 천안시 쌍용동 898
- ☎ 629-0114
- 담당자 : 채경래 선생님

천안죽전원

- 천안시 구성동 107-8
- ☎ 555-5444
- 담당자 : 안재욱 팀장님

효자의 집

- 천안시 삼용동 41-12
- ☎ 558-7772
- 담당자 : 한광현 복지사님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 천안시 단국대학병원 사회사업과
- ☎ 550-6890
- 담당자 : 김기호 선생님

보령시

충남정심원

-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407-7
- ☎ 933-1717
- 담당자 : 강덕순 선생님

천북면사무소

- 보령시 천북면 하민리 135-14
- ☎ 641-9031
- 담당자 : 백승재 선생님

통합형 논술준비 어떻게? 많이 읽고, 쓰고, 생각하라

이해의 단계 (읽기)

주어진 논제와 제시 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선 논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아무리 글을 잘 쓰는 학생이라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합격을 장담할 수 없다.

가) (가), (나), (다)는 환상, 신화, 축제와 같은 비일상적인 것들의 의미를 기술하고 있다. 제시문 (라)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정하여 현대 사회 안에서 비일상적이나 비현실성이 지니는 기능을 논하시오. (2005 이화여대 논술)

나) 다음 제시 문에는 개인의 실존과 대중(군중)의 익명성에 관한 관점들이 나타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비판적 관점에서 논술하라. (2005 서강대 논술)

최근 대학 논술의 형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복수 자료 제시형'이다. 이러한 논술에서 자료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다. 가)는 제시문 (라)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하여 현대 사회 안에서 비일상적이나 비현실성이 지니는 기능에 논하라'가 논제의 핵심이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은 제시 문(가), (나), (다)에 매력을 느껴 쓸데없는 이야기로 원고지를 채우는데, 바로 논제에서 벗어난 경우이다. 나)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개인의 실존과 대중의 익명성과 관련지어 논술하라.'가 논제의 핵심이나, 여기에 '구체적인 사례'가 추가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구체적 사례'가 자신의 주장에 어울리는지 오래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논제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고 제시 문을 읽어나가는데 이때에는 핵심 어휘, 핵심 문장을 도출해내고, 문장과 문장의 관계성 등을 유념하면서 읽는다.

- 대책 :
1. 각 대학의 논술 기출 문제와 출제 의도, 모범 답안 등을 확인한다.
 2. 논술 제시문 독해는 언어 비문학 공부와도 관련이 있다. 비문학 지문을 공부할 때 도출할 수 있을 만한 논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문제의식을 갖도록 노력한다.
 3. 폭넓은 배경지식은 이해의 단계에서 특히

논술을 할 때에는
'읽기 생각하기 쓰기'의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각각 '이해의 단계 분석의 단계
표현의 단계'로 볼 수 있다.

빛을 발한다. 교과서, 대학 추천 도서, 신문, 문고판 서적, 청소년 대상 독서지도서 등 분야와 갈래를 구분하지 말고 읽기를 권한다. 또한, 제시 문으로 미술작품이나 도표, 그래프가 나오기도 한다. 가끔은 영화관, 미술관 전시회에도 가보고 관람을 마친 후에는 꼭 간단한 감상문을 써보는 것이 좋다.

분석의 단계 (생각하기)

이제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한 단계'이다. 우선 제시 문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출제의도를 분석해본다. 많은 학생들이 논술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물론 객관식처럼 정형화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출제자들은 논술 문제를 출제할 때 이미 논제를 통해 나올만한 논술 답안의 형태를 가늠해본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정답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모범 답안처럼 써야지 잘 쓴 논술일까? 이것 역시 일반적인 오해이다. 어느 정도의 정답은 있지만 모범 답안은 오히려 피하는 것이 좋다. 논술 공부의 초기 단계에서는 모범 답안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짜임새 있는 문장 연습에 도움이 되지만, 실전 논술에서는 자칫 진부한 생각, 창의적인 생각이 없는 글로 보일 수 있다. 모범 답안을 읽고 난 후에는 꼭 '나라면 이렇게 쓰겠다.'는 생각의 확장이 필요하다.

주장의 맥락이 결정되었으면 개요를 잡아본다. 물론 이 때에도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다. '주위환가-문제제기'로 서론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논술형태라면, 반대 의견에 대한 오류를 밝힌다든지, 단도직입적인 주장을 한다든지 하는 식의 서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논술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은 학생들이 시도하다가 자칫 '논점일탈'로 빠지기 쉬우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가) 다음 제시문 [A], [B], [C], [D]에는 그 주제와 내용 속에 사람의 행동과 심성에 대한 덕목이 나타나 있다. 각 글에서 하나씩 네 덕목을 찾아 제시하고, 이를 [A]-[B]-[C]-[D]의 순으로 연결·통합시켜 현대를 살아가는 이상적인 인간형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2006 경희대 논술)

한자와 영문이 섞여있어서 다소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창의성이 십분 발휘될 수 있는 개방형 논술 형태이다. 특히 [A]에는 현행 고교생이라면 누구나 아는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가, [D]에는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는 소설이 제시되었는데 교과적 지식과 폭넓은 독서능력은 논술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이다.

대책 : 1. 생각의 확장은 학생 혼자서는 어려운 부분이다. 가장 좋은 것은 '논술 스터디'를 활용하는 것이다. 토론이 가능한 학생들끼리 정기적으로 모여서 생각을 나누는데 이때 선생님이나 학부모, 혹은 졸업한 선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 진행자는 주제를 정할 때, 결론이 양분되는 주제, 개방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주제 두루 선정한다. 학생들은 주장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노력하고, 당일의 내용은 모두 기록해둔다.

2. 학교 수업이나 실생활에서도 창의적인 생각을 키우도록 노력한다. 가령 국사를 공부하면서, 당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본다든지, 수학을 공부하면서 무한급수, 행렬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실생활의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본다. 또한, 독서를 하거나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잠깐 쉬면서 결말을 상상해보는 것도 생각의 폭을 넓히는 훈련이 될 수 있다.

표현의 단계 (쓰기)

글의 개요가 짜여지면 문장으로 옮긴다. 두 가지 연습을 함께 해야 하는데 하나는 쓰기 전에 문장을 머릿속에서 완성하는 것이며, 하나는 쓰고 나서 퇴고하는 것이다. 문장 하나하나를 다듬는 연습이 충분히 되었을 때 적절한 수식어나, 접속 조사를 선택한다든지 반문의 느낌이나 강조의 느낌이 나도록 문장을 구성한다든지 하는 등의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다. 주장이 적절하다 할지라도 문장 구성이 지루하면 채점자의 이목을 끌 수가 없다.

그런데, '요약형 논술'이나 '완성형 논술'의 경우는 사고의 확장보다는 핵심어휘와 문장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능력이 우선이다.

가) 위 글에서 작가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한 내용은 무엇이며, 현대 사회의 어떤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7~8줄(151~200자) 분량으로 서술하시오. (2006 동국대 논술)

나) 제시문 [A]와 제시문 [C]를 비교하여 글을 쓰려고 한다. 아래 주어진 글에 이어질 알맞은 내용을 쓰되, 반드시 다음 제시어 중 세 단어 이상을 사용하여 완성하시오(400~500자). (2006 서강대 논술)

(유의사항 : 제시어 사용은 한글과 한자 모두 가능하며, 어떤 제시어를 사용했는지 답안지에 밑줄을 그어 표시하시오)

국가사(國家史), 갈등(葛藤), 관점(觀點), 일상(日常), 객관(客觀), 통일(統一), 정당화(正當化), 왜곡(歪曲), 동(東)아시아

가)는 '요약형 논술' 이고 나)는 '완성형 논술'이다. 물론 이런 형태의 논술은 개방형 논술보다는 정답의 폭이 좁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논술에까지 무리하게 창의성을 발휘할 필요는 없다. 짧은 분량의 논술일수록 문장 구성은 정제되게, 어휘 사용은 진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대책 : 1. 둘 이상의 학생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논술하고 서로의 원고지를 수정해주면 도움이 된다. 단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만 볼 것이 아니라 어색한 문장을 바꿔주면서 각자의 주장이 환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문장을 쓰도록 노력해보자.
2. 어휘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한문 공부를 틈틈이 해두는 것이 어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모르는 어휘를 사전에서 찾아볼 때에는 예문까지 함께 공부해야 한다.
3. 선생님에게 첨삭을 받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 첨삭을 받은 후에는 같은 주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써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중국의 구양수는 공부의 방법론으로 '많이 읽고(多讀), 많이 쓰고(多作), 많이 생각하라(多商量)'는 뜻으로 '삼다'라 하였다. 이것은 현대의 논술 공부 방법과 직결된다. 그러나 단순히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무엇을 읽고, 무엇을 쓰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모의 지도와 학생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 인터넷한겨레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장애인을 위한 에티켓

장애인과의 대화

휠체어 장애인과의 대화

휠체어이용 장애인과 대화할 때 편안한 위치를 잡은 후, 상대방과 마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있게 된 경우에는 장애인과 너무 가까이 위치하지 않으며, 키가 클수록 더 멀리 떨어져있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에 있는 경우 햇빛으로 인해 눈이 부실 수 있으므로 장애인이 해를 등지고 앉도록 하거나 더 그늘진 곳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대화가 길어지면 좌석에 앉도록 합니다. 의자나 앉을만한 곳이 없다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제안합니다. 웅크리거나 쭈그리고 앉게 되면 곧 고통스럽게 되므로 편안한 자세로 앉도록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있든지 앉아있든지 간에 장애인과 마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과의 대화

시각장애인이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당신이 그에게 말하고 있는지 혹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단 속에서 또는 대중 속에서는 장애인의 이름을 모르면 그 앞에 서서 말을 건넵니다. 또는 시각장애인의 팔을 점잖게 건드린다든지 또는 당신이 누구라는 것을 반복해줍니다.

정신지체장애인과의 대화

정신지체인이 사용하는 말의 발음이 불명확하고 단어선택이 미숙하더라도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어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의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비장애인은 발음을 분명히 천천히 쉬운 단어를 선택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몸짓 등의 행동을 덧붙여 이해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정신지체인이 지능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반발을 하거나 나이 어린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데 생활연령에 맞게 존칭어를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과의 대화

발달장애인은 나, 너의 개념은 있으나 표현에서 나, 너, 우리 등의 인칭대명사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들의 말을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고 상황과 문장속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의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청각장애인과의 대화

청각장애인이 특히 구화법을 모르는 청각장애인들에게 몸짓 및 표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색안경, 커다란 챙모자는 전체 얼굴 특히, 눈을 가릴 수 있으므로 의사소통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된 얼굴표정과 몸동작을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청각장애인이 오랫동안 이야기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고 몇 마디 말을 하여 여전히 경청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장애인의 말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듣고 함부로 추측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언어장애인과의 대화

많은 언어장애인들이 언어장애에도 불구하고 말로써 의사소통을 합니다. 언어장애인의 대화 속도는 비장애인만큼 빠르지 않으며 청각장애를 함께 지닌 경우 상대방의 대화를 이해하는데 더욱 시간이 걸림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얼굴, 눈을 바라보고 대화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소음이 있는 곳에서는 가까이 앉습니다. 장애인의 말이 확실히 끝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적당하게 천천히 말을 합니다. 장애인이 오랫동안 이야기 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고 몇 마디 말을 하여 여전히 경청하고 이해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언어장애인이 말하는 것이 힘들어 보일지라도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끝마칠 때까지 기다립니다. 장애인의 말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듣고 함부로 추측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의 정당한 권리, 청소년이 알아야 합니다.

○●○○ 청소년 아르바이트 의의

- 청소년기는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청소년들은 일의 세계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직업에 대한 예비적인 탐색과 풍부한 경험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 이를 통해서 청소년들은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이러한 진로탐색과 미래의 직업을 체험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 문의 시 유의할 점

(전화하기 전 or 방문하기 전에 꼭 메모해가자)

- 무슨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본다.
- 집과의 거리/교통편을 알아보자
- 보수에 점심 값이 포함되는지 물어보자
- 쉬는 날도 물어 본다
-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는지 물어보자

○●○○○ 이런 곳은 조심하세요!

- 배우면서 일하실 분
- 전단지 배포하실 분
- 평생 직업, 고소득 보장, 해외취업자 모집
- 인감증명서 지참 요구(알바를 할 때는 인감증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 빨리 오라고 한다.
- 회원가입으로 돈을 벌 수 있다(얼마를 투자하면 목돈을 벌 수 있다)
- 터무니없이 많은 월급
- 일을 시작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 사무실 인력이 사장과 여직원이 전부
- 대기업 계열사를 강조
- 급여 조건과 회사명을 확실히 제시하지 않거나 담당 전화번호를 휴대전화로 표기
- 회사에 전화하면 '직접 방문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라고 한다.
- 근무지를 공개하지 않는다.

○●○○○ 이런 곳은 절대 안돼요

- 청소년 고용 출입금지업소만 19세미만
- 유흥주점, 단란주점

- 비디오감상실업, 전화방
- 노래방(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업소에는 출입가능)
- 무도학원, 무도장업, 사행행위 영업
- 성기구 취급업소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만19세미만)
 -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거나 객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 담배소매업
 - 유독물 제조·판매·취급업
 - 티켓다방
 - 주류 판매 목적의 소주방, 호프, 카페 등 형태의 영업
 - 음반판매업,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 일반게임장
 - 만화대여업
- 청소년 취직 금지 직종(만18세미만)
 - 청소년들에게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

○●○○○ 알바를 구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알바를 구했으면 알바를 하기 전 다음 3가지를 꼭 지켜야 합니다.

첫째, 먼저 부모님의 동의 받기

둘째, 부모님의 동의서와 청소년이라는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등 제출하기

셋째, 근로계약서 쓰기

- 근로계약서란 어떤 일을, 몇 시간 동안, 얼마를 받고 할 것인가 등 일하는 조건에 대해서 사업주와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일할 기간, 일할 장소, 해야 할 일, 하루에 일해야 할 시간과 쉬는 시간, 쉬는 날, 받아야 할 돈(임금), 돈 받는 날 등 중요한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알바를 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고, 꼭 2부씩 작성하고 1부는 사장님 1부는 본인이 보관한다 해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 하기 전에 꼭 알아두자!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모든 근로에 대하여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근로기준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고 또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 취직을 할 수 있는 가장 어린 나이: 만 15세 이상
(단, 만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면 예외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음)
- 하루 일하는 시간: 청소년은 하루 7시간, 1주일 42시간 이내
- 야간근로: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일을 해서는 안 됨
- 최저임금 (2005. 9. 1 ~ 2006. 12. 31)
 - 시급: 3,100원
 - 일급: 24,800원 (8시간 근무 기준)
 - 주급: 136,400원 (44시간 근무 기준)
 - 월급: 700,600원 (226시간 근무 기준)
 - * 취업기간 6개월 이내의 만 18세 미만 근로자: 2,790원 (90%)
- 휴식시간: 하루 4시간마다 30분을 쉴 수 있음
- 휴 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하루 휴일을 받을 수 있고, 1개월을 개근했다면 월차휴가(1일)를 받을 수 있음

학부모와 함께 하는

“청양중 예절실천봉사단”



청양중학교



청양 중학교는 봉사활동을 하는 동아리가 없고 너무 시골이라서 복지 시설이나 양로원 등 개인적으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타선도 거의 없다. 이제까지는 형식적인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만을 위한 의무적인 일 위주로 어렵게 활동해왔다.

올해에 새로 오신 선생님께서 독거노인을 돕기 위한 봉사 동아리를 만들어보자고 하셔서 31명의 회원을 모집하였다.

특히 우리학교는 어머니 봉사단을 조직하여 차량이나 밑반찬 그리고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시기 위해 '학부모와 함께 하는 청양 중 예절실천 봉사단'이라는 동아리 명을 정하고 활동 계획을 세웠다.

읍내 노인 분들은 이미 다른 학교에서 결연을 맺고 있어서 대치면에 두 분, 비봉면에 두 분, 읍내의 한 분 총 5독거 노인 가정에 학생 5-6명, 학부모 두 분과 결연하여 매월 2,4주 토요일에 가기로 했다.

본 동아리는 3월은 계획을 세우고 4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1)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카네이션 만들어 드림

마침 충남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어머니 봉사단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가운데 카네이션 만들기를 배워 어머니들은 다시 방과 후에 학생 단원을 가르쳐 꽃바구니와 가슴에 달아드릴 꽃을 만들었다.

5월6일 가지고 봉사 대상 각 가정으로 출발했다.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축하해드리며 간식을 함께 나누며, 특별히 치아가 좋지 않은 맥에는 어머니들이 팔죽을 만들어 주셔서 맛있게 드시게 하였다.

2) 밑반찬도 직접 만들어 드림

또한 6월 1일에는 다음날 봉사를 나갈 준비를 위하여 우리는 어머니 봉사단과 가사실에 모여 장조림을 만들어서 가져가니 부족한 반찬을 채워드리니 많은 도움이 된다 하신다.

3) 수박 화채 만들어 파티함

여름방학을 하던 날 방학을 마치고 조 별로 수박을 안고 찾아가 서툰 솜씨지만 화채를 만들어 드리며 함께 먹으니 조출한 파티가 되었다. 여름이 되니 마당과 텃밭의 풀도 갈 때마나 무성해져서 큰 일거리로 쉽지 않아 구슬 땀을 흘리며 퇴약밭 아래서 열심히 일하고 또한 위로해 드리고 돌아왔다.

4) 추석을 맞아 송편 대접함

추석을 며칠 앞두고 어머니들이 준비해 주신 송편을 들고 찾아 보니 여전히 반갑게 맞으셨다. 어떤 할머니는 자식이 오면 주시려고 잡수시지도 않고 냉장고에 꽂꽂 숨겨두시는 분도 계시다.

남학생들만이라서 뭇목뚝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전 할머니 할아버지와 정이 들고 많이 친숙해졌다.

5) 청소년 자원봉사 박람회서 특선 및 신문보도

그동안 활동한 일들을 정리하여 청소년 자원봉사 박람회에 동아리 활동 분야로 응모한 결과 특선(충청남도 교육감) 입상하여 앞으로의 활동에 더욱 힘을 얻게 되며, 지난 7월 10일 지역주민이 제보하여 지방 신문(뉴스 청양)에 보도되었다.



보육원”으로 “밀알의집”과 교대로 나누어 가기로 했다. 삼신보육원은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이다. 처음 갔을 때 밀알의 집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깨끗하고 좋은 시설이었다. 건물도 크고 다른 학교에서 봉사활동 온 학생들도 있었다. 여태껏 다니던 “밀알의집”도 이랬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삼신보육원”에서 시작한 일은 잡초제거, 청소, 빨래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였다. 조금 힘들긴 했지만 여기 있는 아이들이 깨끗한 옷을 입고 깔끔한 집에서 산다는 생각을 하니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다. 봉사활동이 끝 나갈 때 쯤 어디서 어린아이 한명이 와서 우리보고 가라는 것이다. 어리둥절했다. 그때는 그 아이의 생각을 몰랐었다. 봉사활동이 끝나고 선생님 차를 타고 집으로 갈 때 벽 뒤에 숨어서 그 아이가 우리를 보고 있었다. 그때 생각했다. ‘저 아이의 본심은 우리들과 놀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나중에 가면 친형처럼 잘 대해줘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항상 같은 일과 노력봉사활동만 하느라고 아이들과는 별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 지금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봉사활동을 하며 이런 저런 일이 있었지만 나의 첫 번째 봉사활동인 목욕봉사활동은 잊을 수 없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색해 하며 아무것도 몰랐던 나와 지금의 나는 하늘과 땅 차이인거 같다. 봉사활동이란 동아리를 만들며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시키는 대로 닦아 드리고 청소만 하면 되는 줄 알았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시키는 대로 닦아 드리고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닌 그분들과 마음이 통해 어딜 어떻게 닦아 드려야 할지 어떻게 청소해야 할지를 아는 것 같다. 2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며 52시간이란 조그마한 시간을 투자 했지만 19년을 살면서 이렇게 보람 있게 산적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짧은 2학년을 마치고 3학년에 올라오게 되었다. 3학년에 올라오면서 봉사활동 이끌어 주시던 선생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되었다. 다른 선생님이 맡아 주셨다. “작년엔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몰라도 올해에는 나하고 열심히해보자” 라는 말에 우리는 힘이 생겼다. 3학년에 올라와선 봉사활동 내용과 동아리 이름도 새롭게 한번 바꾸기로 하였다. 작년도의 봉사활동이 주로 노력봉사활동으로 우리들에게 봉사활동이 무엇이지를 알게 하였다면 올해에는 조금씩이나마 제대로 알고 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이름도 하찮은 돌이지만 개울을 건너게 해주는 징검다리처럼 우리들도 무엇인가를 위해 한 발짝 한 발짝씩 나아가기로 하는 뜻에서 “징검다리”로 정하였다.

삼신보육원과 밀알의집 두 곳만 활동하던 것

도 올해에는 밀알의집은 고정적으로 가고, 비교적 자원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삼신보육원은 빼고 다른 곳으로 바꾸기로 하고 다른 곳을 구할 때 까지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밀알의집”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 가기가 더욱 힘들어 졌다고 하였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태워주신다는 말에 우리는 선생님께 고마울 따름이다. 부여에서도 버스타고 20분 다시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는 밀알의집으로 봉사활동을 가는 날, 꼬불꼬불 산길을 올라 도착한 밀알의 집, 밀알의 집 식구들이 전보다 더 늘어난 것 같았다. 새집이라 그런지 좋아 보이고 거기 계신 분들도 건강해 보였다. 하지만 그전 밀알의 집은 가기 쉬운 곳에 있어 다른 사람들도 봉사활동을 올수 있지만 이곳은 너무 가기가 힘들어 어떨는지 걱정이 된다. 밀알의집에 도착해 우리가 평소 하던 목욕봉사를 하였다. 그전 밀알의 집은 따뜻한 물도 잘 나오지 않아 고생이 많았는데 새 집은 따뜻한 물도 잘나오고 목욕탕도 커서 여러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어 좋았다. 지난 1년 동안 밀알의집 식구들은 이젠 가족 같은 분위기로 되어 가고 있다. 목욕봉사를 하며 서로 도와가며 닦아주고 챙겨주면서 봉사자와 도움을 받는 자에서 하나의 가족으로 바뀌어 가는 기분이 든다. 앞으로 남은 몇 달 동안 열심히 그분들을 도와 줄 수 있는 내가 되어야겠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서도 밀알의집 식구 들 만큼은 꼭 찾아뵙고 싶은 나의 바램이다.

올해 다시 시작한 밀알의집 봉사활동은 건물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또 다른 봉사활동이었다. 올해 선생님께서는 “아는 만큼 보인다.”며 활동을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조사 및 관련 공부를 해야 한다며 돌아가면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사전조사 및 관련사항을 공부하여 다른 단원들에게 발표하기로 한 활동 덕이다. 지체장애인과 신체장애인이 무엇이며 정신지체 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노인봉사활동, 복지시설의 종류, 장애인에 대한 예절 등 많은 것을 공부했다. 예전에는 아저씨의 몸이 왜 저렇게 불편하실까? 저 아저씨는 왜 말을 못하시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는 좀 알 것 같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라고 하던 그 아이의 마음과 목욕봉사활동을 하면서 느껴보지 못한 아저씨의 몸이 나의 몸처럼 따뜻함을 느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나의 앞날을 보았다. 블로그, 카페, 관련 사이트 등 자원봉사, 장애인 등 자료를 검색하면서 세상에는 남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알았다.



였다. 또 아빠는 우선 동아리 학생들을 불러 쓰레기 수거 할 때 철저히 분리수거하라고 거듭 말씀 하셨다. 쓰레기 줍는 데에 있어서도 아빠는 철저하게 조별로 어울려 다니면서 캔을 줍는 사람은 캔만을 줍도록 하고 병만을 줍는 사람은 병을 줍도록 했다.

그런 다음 아빠는 나에게로 오셔서 직접 사구를 관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아빠는 사구를 바라다보면서 설명을 해 주셨다. 실제로 모래언덕을 잘 들여다보니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과정을 알아 볼 수가 있었다.

사구위로 올라가니 커다란 별판이 한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 별판을 보는 순간 뛰어 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래서 막 걸어 달려가려고 하자, 아빠는 내 걸음을 멈추게 하고는 따라오라고 하셨다. 이곳은 사구보호지역이라 아무데나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아빠는 사구에 들어가는 길을 알고 계셨다. 해양환경감시원으로 활동하시는 아빠께서는 지금은 보전활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신다고 하셨다. 1만평에 달한다는 사구를 아무리 쳐다보아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오로지 여린 보리밭처럼 보인다. 도대체 무엇을 보호하고 있는 것일까!

아빠는 이곳에 있는 식물들을 건드릴까봐 조심조심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다. 얼마쯤 걸어 들어갔을까. 아빠는 걸음을 멈추더니 무엇인가를 가리켰다. 나는 아빠의 손끝 쪽으로 자세히 둘러다 보니 아주 이상하고 진귀한 식물을 발견했는데 아빠는 그것은 '초종용'이라고 하셨다. 실제로 이 사구에는 내가 지금까지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수많은 자생동물들이 자라나고 가르쳐 주셨다. 멸종위기종인 초종용을 비롯하여 갯머위, 보리사초, 해당화..... 등을 관찰 할 수 있었는데 이 식물들은 국내에서도 보기 드문 사구식물로 알려져 보존가치가 높다고 하셨다.

잠시 후, 아빠는 또 그 옆에 노랗고 키가 큰 풀을 가리키며 뽑으라고 하셨다. 아빠는 그 꽃이 달맞이꽃이라고 하였다. 이 꽃은 외래식물로 이곳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뽑아내야한다고 하셨다.

아빠는 주위를 살펴보면 사구를 해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찾아보라고 하셨다. 나는 사구를 둘러보았을 때, 나는 끔찍한 표지판을 보게 되었다. '해안전투사격장'이라는 표지판이 보였다. 여기는 분명 사구보호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미군들

에게는 이곳에서 훈련하는 '해안전투사격장'이란 팻말이 버젓이 서 있는 것이었다. 이상해서 아빠께 물었더니 이곳은 미군들이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야영장이라고 하셨다.

얼마 전에는 미8군 예하부대 소속 군인 250여 명이 트럭 40여대에 나눠 타고 신두리 모래 언덕으로 진입한 일이 있었다고 아빠는 말씀해 주셨다. 그로 인해 해당화를 비롯하여 사구식물이 다량훼손 되었다고 한다. 그 뿐만이 아니라 더욱 큰 문제는 그 사구에서 미군들이 야영을 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모래는 따뜻하고 곱고 보리 같은 사초들이 있어서 마치 베고 자기에는 안성맞춤이었을지도 모른다. 진정 우리들이 정성들여 보호하는 이곳이 그들이 한낱 야영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 나는 지금 다른 풀들을 밟을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하는 데 탱크를 몰고 와 야영까지 하다니! 나는 그 순간 그곳에 자라나는 식물들이 받았을 지도 모를 고통을 생각하니 내가 식물인 된 듯 무척 고통스러웠다.

내가 분노하는 사이에 아빠는 또 하나의 이상한 캔을 발견하시고는 바코드를 확인해보라는 것이었다. 캔의 바코드가 '5'라고 말했더니 아빠는 '5'나 '6'로 시작되는 바코드는 우리나라 것이 아니라, 미군들이 야영하면서 버린 것이라고 하셨다. 나는 그 캔에 대하여 사진을 찍어 두었다. 그들이 머물렀던 지역에는 깡통만이 아니라 다른 쓰레기들도 모래에 파묻혀 있었다.

그러나 이 사구를 해치고 있는 것은 일부 미군들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아야 한다. 이 사구를 차지하려고 욕심 부리는 사람들과 이곳에 왔다가 즐기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사구는 더욱 황폐화 되어 가고 있었다. 나는 여기에 오다가 느낀 일이지만 해변에 인접한 사구 위에는 리조트 회사가 지은 펜션을 보고 놀랐다. 시간이 갈수록 이 사구에 집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 이제는 사구를 상당부분 잠식하고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불법시설물들이 계속해서 지어지도록 허가 해주는 것도 문제다. 사구 위에는 바로 사륜 오토바이 보관시설이 들어서 있었다. 이 오토바이들은 여름에 굉음을 내고 바다 모래를 달리면서 해안 사구를 망치고 있다. 나는 4륜 오토바이들이 있는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도 디카에 담았다.

이밖에도 또한 사구를 해치는 것은 바다에서



모래를 채취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모래 채취 선을 이용해서 모래를 채취해 가면 결국 해변에 있는 모래들로 다시 바다를 채우게 될 테니까 결국 나중에는 사구도 없어지게 만들 지도 모른다.

나는 지금까지 사구를 해치는 것이 여러 가지 알아보았다. 하지만 내가 위에서 언급은 안했지만 가장 사구를 해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구 밖으로 나와 보니 벌써 사람들은 많은 쓰레기들을 줍고 있었다. 나도 이제 사구 보전활동을 왜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청소를 하는데 더욱 힘이 쏟는 듯 했다.

쓰레기를 주우면서 주위를 돌아보면 불법으로 투기한 쓰레기 봉치들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여기 저기 아무렇게 사구에 버린 쓰레기는 치우기도 어렵다. 더욱이 그 보다도 대부분 쓰레기들은 해변을 중심으로 바다에 흩어져 있었다. 이 쓰레기들은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은 사람들이 버린 것들이다. 그 쓰레기들을 조사 해보면 여름철 사람들이 먹고 버린 음식물부터 술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해변을 따라서 쓰레기를 줍다 보니, 대부분 쓰레기는 물에 젖어 무거워서 나는 그 부대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주어야만 했다. 오래된 음식쓰레기에서는 부패되어서 냄새가 진동했다. 이곳 해변에는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얼마 줍지도 않았는데 부대에 가득 찼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주운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 우선 해변 위쪽에 모두 쓰레기 부대를 모아야만 했다. 그 다음으로 아빠는 물기가 있는 쓰레기를 전부다 물에 적지 않도록 말려야만 했다. 모아진 쓰레기가 얼마나 많던지! 우리는 오늘 당장 처리하기에는 우리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이곳은 너무 떨어진 곳이라 우리가 힘들어 줍는다고 하더라도 쓰레기차가 가져가지도 않는다.

마침내 나는 쓰레기 더미를 보면서 다른 단체와 연합해서 청소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우리와 함께할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 나는 신두리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찍은 사진 자료들을 올리고, 신두리에서 봉사활동을 함께하시는 내용을 소개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왜 신두리 사구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와 환경을 보호하면서 이벤트에 참여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여기에서 이

벤트는 내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인데 그 다음날에 보물찾기도 할 예정이었다.

그 날 저녁 아빠와 나는 거실에 앉아서 내일 사람들에게 줄 보물찾기 준지를 하고 아빠는 물도 포장했다. 그러면서 신두리 청소문제와 보전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 나는 그 신두리에다 코스모스 단지를 만드는 것이 어떻냐고 재의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찾고 이곳을 찾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의식 수준이 높아져 함부로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도 말씀드렸다. 하지만 아빠는 개발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셨다.

그 날 저녁 나는 무척 피곤했고 꿈을 꾸었는데 나는 신두리 사구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신두리 사구 위에 내가 만들 구름다리를 놓고 여러 친구들과 놀면서 그곳에 구름다리를 건너며 신두리 사구를 관찰하고 설명해주는 꿈을 꾸었다. 그런 열렬한 내 꿈 때문이었을까.

일요일 아침, 뜻하지 않게 한 은행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다행히 홍콩계 은행인 서울K은행의 직원들이 우리의 사연을 듣고는 쓰레기 수거 작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그 분들은 이 근처로 놀러 갈 생각이었는데 잠시 들러 청소를 하는 일을 돕겠다고 하셨다.

그 다음날 11시 경. 약속시간에 맞춰 차가 도착하였고 모두 나서서 쓰레기 줍는 일에 참여하였다. 우리는 신두리 해변을 오가며, 오늘 아침 일찍 와서 숨겨둔 보물을 찾았다. 나는 보물을 못 찾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숨겨둔 보물을 찾아 주기도 했다. 해변에 남녀노소가 어울려 휴지를 줍는 모습은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함께 청소만하여도 오랜 친구들처럼 보였다. 한편 우리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는 마을에서도 동참하였는데 쓰레기를 실어나를 트럭도 제공해 주었다. 그 날 나는 신두리를 청소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한결같이 신두리 사구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노력을 엿볼 수가 있었다.

신두리 사구를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앞으로 신두리는 정말 더욱 더 아름다워 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국내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하고 있는 신두리 사구!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곳을 보전하는 데 사랑과 관심을 기울일 생각이다.



방학

학생, 교사, 일반인(서명유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사활동 안내신청 ▶ 지역별 · 기관별 · 날짜별로 검색
합니다.
후 활동일에 활동하시면 됩니다.

신청내역 ▶ 취소
하셔야 합니다.



확인서 인쇄

로그인 ▶ 미니홈페이지(마이페이지) ▶ 봉사활동 신청내역



청소년을 21세기 주역으로 육성

||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자율참여 확대

- 청소년들의 정책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연 1회 이상 청소년과 도지사와의 만남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도 청소년자치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연 2회 이상 청소년 자치활동 프로그램을 보살펴 나가겠습니다.
- 청소년의 독립된 인격체 함양을 위한 자원봉사박람회 1회, 문화정보지 발간 4회, 성년의 날 행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 국제화 · 정보화 시대의 주도능력 배양

- 국제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과 상호 문화교류를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를 연 5회 이상 실시 하겠습니다.
- 청소년의 정보활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도 홈페이지에 사이버 백제역사 문화관, 예절마당 등을 운영하여 청소년 학습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청소년의 문화예술 감수성 함양과 수련활동 지원

-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문화의 집 7개소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하여 어울마당, 음악회, 동아리육성 등 3가지 이상의 시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 청소년 수련시설 13개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속적인 수련활동 공간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모두가 참여하는 청소년 보호

- 청소년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하여 영재육성장학제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하겠습니다.
-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청소년자원봉사센터 1개소 이상을 운영하고 15개 이상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봉사활동터전을 30곳 이상 확보하여 봉사활동을 돕겠습니다.
- 청소년의 진로, 이성, 성문제 등 고민을 풀어주기 위하여 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 1개소를 운영하되, 상담프로그램을 확대 개발하여 나가겠습니다.
-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환경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연 2회 이상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www.bongsai.or.kr



충청남도 Youth Service Center

청소년활동진흥센터

(320-802) 충남 논산시 취암동 19-1 공설운동장내
전화 | 041 · 736 · 9003(4)
팩스 | 041 · 733 · 1984

홈페이지 | www.bongsai.or.kr

청소년
활동